



박창래의 여수수산학교 학생독립운동 사건

【결정사안】

박창래(朴昌來, 1914년생)는 여수공립 수산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30년 학생독립운동 비밀결사 조직인 독서회에서 활동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같은 해 9월 다른 독서회 관련자 21명과 함께 퇴학처분을 당하고 검거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이에 진실규명 신청인은 “독서회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박창래의 독립운동 사실에 대한 확인과 함께 명예회복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하여 진실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박창래(朴昌來, 1914년생)는 여수공립 수산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30년 학생독립운동 비밀결사 조직인 독서회에서 활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같은 해 9월 다른 독서회 관련자 21명과 함께 퇴학처분을 당하고 검거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이에 진실규명 신청인은 ‘독서회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박창래의 독립운동 사실에 대한 확인과 명예회복을 요청하였다.

2. 여수수산학교의 독서회 조직은 1930년 3월 여수 종고산 정상에서 열린 모임에서 발족했으며, 여수지역의 청년 단체 중 항일성격을 가진 주요한 단체였다. 박창래는 백인렬의 권유를 받아 동(同)회에 가입했고, 초기에는 백인렬 조에 소속되어 활동했으나, ‘독서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자 5개조 중에 정학조가 대표로 선임되었던 2조에서 활동했다. 그는 김재곤 등과 같은 조에서 활동하면서 일제의 한반도 차별정책과 식민지 교육에 불만을 품고 조국의 독립운동에 나설 것을 결심했으며, 동료 학생들과 회합을 갖고 항일의식을 고취하며 항일투쟁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1930년 9월 독서회 회원들의 활동이 일제에게 발각되어 박창래도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구속 수감 되었으며, 1931년 9월 4일 동료 13명과 광주 지방법원으로부터 치안유지법 위반(제1조제2항)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같이 박창래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독서회’ 조직을 통해 반일적 사상을 가지고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로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은 예비조사에서 행했던 문헌조사, 전문가 면담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3. 사회주의계열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독서회’의 성격을 고려해 본다면 해방

전 박창래가 독서회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그가 사회주의 사상과 연계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여순사건 당시 그가 화양면 인민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문헌자료와 증언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며, 전문가들의 견해 및 참고인들과 신청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박창래는 여순사건 발생 후 진압군에게 체포되어 ‘만성리 형제묘’에서 군경에게 희생당했다는 견해가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적으로 1930년대 독서회 활동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은 박창래의 항일 행적은 1931년 9월 4일자 여수수산학교 독서회 판결문등을 통해 확인된 바, 본 사건은 기본법 제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실규명으로 판단된다.

【전 문】

【사 건】 가-598 박창래의 여수수산학교 학생독립운동 규명

【신청인】 박도순

【결정일】 2007. 5. 15.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신청 개요

박창래(朴昌來, 1914년생)는 여수공립 수산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30년 당시, 학생 독립운동 비밀결사 조직인 독서회에서 활동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같은 해 9월 다른 독서회 관련자 21명과 함께 퇴학처분을 당하고 검거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이에 진실규명 신청인 박도순은 “독서회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부친 박창래의 독립운동 사실에 대한 확인과 함께 명예회복을 요청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박창래의 항일운동 행적이 적절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에 대한 과장된 좌익행적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진실규명도 요청하였다.



II. 진실규명 과제

박창래의 항일독립운동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30년대 여수공립수산학교 재학생으로 조직된 비밀결사 조직인 ‘독서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규명, ‘독서회’ 내에서 박창래의 역할과 그의 항일운동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박창래의 항일운동 행적이 최근까지 적절하게 평가받지 못한 이유가 과장되어 알려진 그의 해방 후 좌익행적과 관련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관한 확인이다.

III. 진실규명의 목적과 근거

진실규명 신청서 검토와 예비조사 결과, 박창래와 함께 독서회 활동에 참여하여 이미 서훈이 추서된 기(既) 독립유공자 7명을 확인하였으며 (1977년 1명, 2000년 1명, 2005년 5명), 신청인이 주장하는 박창래의 항일운동 행적이 판결문과 당시 신문기사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일부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¹⁾ 본 사건은 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되는 바,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년 9월 19일 조사개시 의결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IV. 조사방법과 경과

1. 조사의 방법

2006년 1월 9일 신청서를 접수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예비조사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2006년 9월 19일 본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예비조사 기간에는 민원의 신빙성 여부와 제출된 첨부자료에 대한 검토 및 참고인들과의 전화면담, 관련된 연구문헌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조사개시가 결정된 후에는 사건과 관련된 추가 자료 확보와 참고인 면담조사 활동에 주력하였다.

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가. 문헌자료 조사

본 사건과 관련한 연구 문헌의 검색을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연구회보, 국가보훈처, 한국역사정보통합 시스템, 독립기념관의 소장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신청인이 타 국가기

1) 여수수산학교 독서회 판결문, 1931.9.4. 광주지방법원

관에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진실규명 신청인이 제출한 사건 관련 첨부 자료인 ‘독립운동가 윤자환·윤희숙 의사 추모식 자료집’, ‘박창래의 항일행적 사실을 고지하는 여수시 공문’ 및 여수대학교에서 박창래에게 수여한 ‘명예졸업장’ 사본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 외 정부기록보존소의 판결문 사본,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발행의 ‘독립운동사 제9권 : 학생독립운동사’, ‘여수수산대학 개교70년사’, ‘완도군 항일운동사’, ‘여수여천 발전사’, 2005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된 ‘윤경현과 오늘날의 공훈록 사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여수수산학교 독서회 사건을 다룬 당시 신문 기사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본 사건과 관련하여 1920~30년대 항일 학생운동, 여수수산학교 독서회 및 여순사건과 관련한 47건의 국내외 참고문헌을 검토했으며, 그 목록을 작성하였다.²⁾

나. 전문가면담

사건의 핵심에 보다 용이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며 제출된 첨부자료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해당 지역사회연구소의 연구원들과 향토사학자와 같은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다. 진술청취

본 사건의 예비조사 및 사전조사 기간이었던 2006년 5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신청인과 참고인 및 전문가들과의 전화 면담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행적을 확인했다. 이후 두 차례 실시했던 실지조사를 통해 진실규명 신청인 및 참고인들과 직접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관련 추가 자료를 발굴하였다.

1차 여수 실지조사는 2006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고, 조사 기간에는 박창래의 자(子)인 신청인 박도순, 해당지역 사회 연구소의 연구원들, 향토사학자와 면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외 화양면 지역거주민인 곽사훈(89세), 김종림(70세), 조순환(85세)과 김형주(81세)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2차 여수 실지조사는 본 사건의 조사개시 결정 후인 2006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었는데, 조사기간 동안 신청인 박도순, 해당지역사회연구소의 전문가, 향토사학자와 지역거주민 문장옥(85세), 고연임(82세), 신영길(78세)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2) 사건관련 문헌자료 목록, 국내문헌 및 해외문헌 47건.(단행본 19, 연구문헌 및 기타자료 28건)



2. 조사의 경과

본 사건의 자세한 조사과정과 진행사항은 첨부서류인 ‘조사일지’에 시간 순으로 기록하였다.³⁾

V. 조사결과

1. 독서회의 성격과 역할 및 박창래의 항일운동 행적에 대한 규명

가. 예비조사 결과에 나타난 사건의 주요 내용

예비조사는 신청인과 참고인 및 전문가들과의 전화 면담과 본 조사와 관련한 연구 문헌에 대한 검토를 위주로 진행했으며,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서회 활동과 관련되어 총 22명이 검거되었으나, 실제로 14명(이용기, 오늘보, 정학조, 박재석, 김봉철, 진자미, 김남호, 백인렬, 정보한, 조병호, 윤경현, 박창래, 김재곤, 차용현)이 입건되었고, 이는 독서회 활동과 관련되어 기존에 추서된 독립유공자의 공적내용 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⁴⁾ 기존에 추서된 유공자 윤경현은 1977년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1990년 애족장에 추서되었는데, 그는 1930년 3월 동교생 이용기 등과 항일결사 조직을 결성하였다. 여수의 종고산을 집합 장소로 일제의 민족차별 및 민족말살 정책을 규탄하는 한편 매주 1회씩 모임을 갖고 항일투쟁 방안을 모색하였다. 동(同)년 9월 동(同)조직의 활동이 일정에 발각, 주동자로 지목되어 피체되었으며, 1931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동년 11월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르고 혹독한 고문의 여독으로 1934년 10월 9일에 사망하였다. 또한 오늘보는 2000년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1930년 여수공립수산학교 재학 중 윤경현과 함께 독서회를 조직하고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1930년 3월 하순, 여수 등대산 등에서 회합을 갖고 사회주의 관련서적을 유통했으며, 동지규합에 힘을 쏟던 중 조직이 노출되어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1931년 9월 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1971년 3월 15일에 사망하였다.

나. 연구문헌을 통해 확인된 사실

문헌자료에서 평가하는 여수지역의 학생운동 및 독서회의 역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

3) 조사일지.

4) 국가보훈처, 1988년과 2000년,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 6권, 국가보훈처, 370쪽 과 14권, 483~484쪽, 국가 보훈처의 공훈심사 내용 참조. 2005년 추서자 5인은 2006년 12월 20일 현재 국가보훈처 공훈 전자자료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리할 수 있다.

첫째, 1920년대 중반이후 설립된 청년회 중에는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가 많았으며⁵⁾ 이러한 청년단체들은 당시 농민운동 및 노동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둘째, 여수수산학교의 독서회 조직은 3.1운동 이후 1920년대 여수지역의 청년 단체 중 항일성격을 가진 주요한 단체로서, 광주학생운동 발발과 때를 같이 하여 여수수산학교 학생 2백여 명이 동맹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1919년 3.1운동 이후 학생운동의 양상은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을 바탕으로 한 ‘동맹휴교’의 형태로 표출되었고, 호남지역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비밀결사인 독서회가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성진회⁶⁾와 독서회 조직은 광주지역 학생들의 항일운동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⁷⁾

넷째, 여수수산학교 동맹휴학 투쟁은 지역의 운동을 반제반봉건 민족해방운동으로 혁명화시켰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 성격의 독서회 조직은 지역의 계급운동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⁸⁾

문헌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여수수산학교 독서회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⁹⁾

1930년 3월부터 공립 여수수산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항일운동 단체가 조직되었으며, 이들은 ‘독서회’라는 비밀결사 조직을 구성하고 매주 1회씩 여수 등대산, 종고산, 장군도에서 항일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회합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평소 일제의 차별정책과 식민지 교육에 불만을 품고 일제에 항거할 결심 하에 관련서적을 함께 읽고 조직을 결성하였으나, 1930년 9월에 그들의 활동이 발각되어 체포 구금되었다 한다.

재판에 회부된 독서회 회원 14명은 1931년 9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치안유지법 위반혐의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명은 대구복식법원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판결문에 나타난 독서회 조직의 성립과정은 다음과 같다.¹⁰⁾

독서회를 조직하려는 목적으로 열린 모임의 시기와 장소는 1930년 3월 하순 경 여수 등대산과 윤경현 하숙집 등이었다 하며, 당시 이 모임에 참여자는 총 9명(윤경현, 이용기, 오늘

5) 이는 1925년 조선공산당 창당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6) 독서회의 전신.

7) 순천대학교남도문화연구소, 2006, 『여수항일운동사』, 전남 여수시청,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여수항일운동사편찬위원회, 152~153쪽. 학생들은 위와 같은 조직을 통해 우선 학원내의 문제해결을 위한 동맹휴교를 일으켰으며, 결국 이러한 움직임이 항일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한다.

8) 김인덕, 1991, 「식민지 시대 여수지역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일고찰」, 『성대사림』, 성대학회, 83쪽.

9) 여수시청, 2004, 『독립유공자 추서 자료(독서회 사건)』; 순천대학교남도문화연구소, 2006, 『여수항일운동사』, 156~159쪽.

10) 여수시청, 2004, 『독립유공자 추서 자료 (독서회 사건)』



보, 정학조, 곽재석, 김양호, 진자미, 백인렬, 조병호)으로 이들은 일제에 항거하기 위한 비밀 결사 단체를 조직할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후 독서회 조직은 1930년 3월 중, 여수 종고산 정상에서 열린 모임에서 발족했다. 윤경현이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3개 반으로 활동조가 편성되었다. 1930년 4월 중순, 여수 종고산에서 열린 모임으로 초기 독서회 참여자 9명(이용기, 오늘보, 정학조, 곽재석, 김양호, 진자미, 백인렬, 조병호) 외 2명(박창래, 김재곤)이 추가로 참여하여 독서회 조직이 확대되었다. 1930년 7월 19일 독서회 조직은 더욱 확대되어 총 참여자 22명, 5개 반으로 늘어났다.

판결문에서 설명하는 독서회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¹¹⁾

독서회는 1930년 여수수산학교 졸업생이며 강진군 해태조합 서기로 근무하던 윤경현과 동교 재학생 이용기 등 14명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윤경현과 이용기는 학업성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빈곤하여 매월 학자금을 태납함으로써 조행성적이 깎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학교 당국의 조치에 분개했으며, 자신이 무산계급자로서 비애를 느끼는 동시에 유산계급을 저주하고 나아가서는 계급을 철폐하여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同) 주의 연구를 위해 동(同)교 생도 중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를 규합하여 독서회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였다.’

1930년 3월 하순, 이들은 일불산, 여수 등대산 또는 윤경현의 하숙 등에서 밀회했으며, 김양호, 백인렬, 오늘보, 정재석, 정학조, 조병호, 진자미 등과 만나 창립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고, 그 뒤 동교 재학생 박창래, 김재곤, 김봉칠, 차용현도 포섭하여 어느 날 오후 10시쯤 읍내의 뒤편 종고산의 정상에 올라 윤경현을 회장으로 추천했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함양과 보급’이라는 강령하에 독서회를 창립했다. 이들은 다수 집합하게 되면 주위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9명을 3조로 나누어 매주 1회 조별로 회합을 갖고, 각 조의 지도는 윤경현, 이용기, 백인렬이 맡도록 했으며, 매월 50전씩 회비를 모아 사회주의 서적을 구입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연구했다.

그러나 독서회 조직과 성립과정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통한 설명과 백인렬의 증언은 상이하다.¹²⁾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1집』에 실린 백인렬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여수수산학교내에도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 지부가 있었는데,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자 이에

11) 「여수수산생 13명 공판」, 『동아일보』, 1931.6.20, 1931.8.30.; 「려수수산학생 14명 예심종결」, 1931.8.5.; 「려수수산학교 제 1회 공판 개정」, 1931.8.25.; 「려수수산생 제2회 공판」, 1931. 8.29.; 여수시청 독립유공자 추서 자료(독서회 사건), 2004.; 「여수수산학교 독서회 판결문」, 1931.9.4., 광주지방법원 형사부; 김계유, 1982, 『여수 여천 발전사』 291~292쪽.

12) 『여수 여천 발전사』 291~292쪽; 여수지역사회 연구소, 1998,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1집』, ‘증언채록: 내가 겪은 여순 사건’ 339~340쪽.

호응할 자세를 갖추고 있던 중 일본인 교우들의 지나친 민족차별에 자극받아 즉흥적으로 들고 일어난 것뿐이며 1) 민족차별을 철폐하라, 2) 한국인에게 한국사를 가르쳐라, 3) 모국어 사용을 막지 말라는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일본학생을 제외한 전교생이 교실에서 농성을 했는데, 이 사건이 신문에 불순한 세력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둔갑되었다'고 한다.

백인렬은 판결문상에 나타난 독서회 사건은 일본에 의해 그 성격이 변질된 것으로 조선 내 학생운동이 3·1운동과 같이 민중운동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일본이 독서회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이념적인 투쟁으로 규정하고 순수한 항일독립운동이 아닌 것처럼 격하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백인렬에 의하면 초기에는 독서회 모임을 특별한 명칭 없이 그냥 '학생회'라고 했지만 '광주에서 내려와서 지도를 했고 그 뒷선에 사람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백인렬 자신은 조직체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며 해방 후 학창시절의 독서회 활동과 연계 되어 남로당이 아닌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조직에 속하게 되었으며, 그 조직에 공산주의자들도 어느 정도 섞여 있었다고 한다.

백인렬은 또 여수지역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우익인사 정재완이 위원장, 김수평은 보안대장, 백인렬은 문화부장으로 활동했고, 박창래에 대해 건설한 사람으로 화양면 나진 사람이며, 여순사건 때 희생되었다라고 평소 언급했다고 한다.

판결문에 기재된 여수수산학교 독서회 사건 연루자들의 인적사항과 판결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¹³⁾

<표 1> 여수수산학교 독서회 사건 연루자 인적사항 및 판결내용

성명	본적	주소	직업	연령	판결
윤경현(尹景鉉)	강진군 도암면 학송리	강진군 대구면 마양리	강진 해태어업 조합 서기	20	징역 2년
이용기(李容起)	여수군 여수읍 본정	左同	여수수산학교 3년생	20	징역 2년
오놀보(吳耆甫)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여수군 여수읍 동정	上同	20	징역 1년
정학조(鄭學朝)	장흥군 장흥면 덕정리	上同	上同	20	징역 1년
곽재석(郭在石)	여수군 여수읍 동정	上同	上同	20	징역 1년

13) 순천대학교남도문화연구소, 2006, 『여수항일운동사』, 전남 여수시청,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여수항일운동사편찬위원회, 158쪽, 표 6-2; 1931년 형공합 제 19호, 여수수산학교 독서회 사건 판결문.



성명	본적	주소	직업	연령	판결
김봉칠(金奉七)	제주군 정의면 신산리	上同	上同	19	징역 1년
진자미(秦者味)	여수군 여수읍 본정	左同	上同	19	징역 1년
김양호(金良浩)	완도군 고금면 능상리	여수군 여수읍 동정	上同	19	징역 1년
백인렬(白仁烈)	여수군 여수읍 서리	上同	여수수산학교 2년생	19	징역 1년 6월
정보한(鄭輔漢)	여수군 여수읍 서정	上同	上同	19	징역 1년
조병호(趙炳浩)	완도군 군외면 영리	上同	上同	20	징역 1년 6월
박창래(朴昌來)	여수군 화양면 나진리	上同	上同	19	징역 1년
김재곤(金載坤)	여수군 여수읍 동정	上同	上同	17	징역 1년
차용헌(車用憲)	완도군 청산면 상동리	上同	上同	20	징역 1년

제적등본 상 박창래의 본적은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621로 생년월일은 1914년 7월 3일, 사망연월일은 1952년 5월 9일이고, 판결문에 나타난 박창래의 항일행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⁴⁾

박창래는 1930년 3월 여수공립수산학교 2학년에 재학 중 항일단체인 독서회에 가담하여 일제의 한반도 차별정책과 식민지 교육에 불만을 품고 조국의 독립운동에 나설 것을 결심하고, 동료 학생들과 회합을 갖고 일제에 항거할 뜻을 모았다.

박창래는 백인렬의 권유를 받아 동(同)회에 가입했으며, 초기에는 백인렬 조에 소속되어 활동했으나, '독서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자 5개조 중에 정학조가 대표로 선임되었던 2조에서 활동했다. 김재곤 등과 같은 조에서 활동하면서 항일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독서회 회원들과 함께 매주 1회씩 여수 등대산, 종고산, 장군도 등에서 회합을 갖고 항일운동과 관련된 서적을 윤통하며 동지규합 및 항일 사상 고취를 위한 활동을 했다. 그러던 중 1930년 9월 독서회의 이러한 활동이 일제에게 발각, 체포되어 박창래도 구속 수감 되었으며, 1931년 9월 4일 동료 13명과 함께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치안유지법 위반(제1조제2항)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다. 전문가 자문 결과¹⁵⁾

여수수산학교 독서회 사건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항일운동사에서 독

14) 「여수수산학교 독서회 판결문」, 1931.9.4., 광주지방법원.

15) 면담 보고서 I, II.

사회 활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건의 전반적 개요에 대한 자문을 통해 사건의 합리적인 접근 방법과 조사방향 설정, 그리고 추가 자료발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본 조사관은 2006년 7월 21일 국사편찬위원회의 해당전문가와 면담을 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일운동사에서 독서회 활동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당시의 신문기사를 통해서 독서회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독서회 사건과 관련, 대통령 표창을 추서 받은 인물들의 공훈심사 내용과 공적사항에 대한 확인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 현지조사 결과¹⁶⁾

1차 여수 실지조사는 2006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여수시청, 여수 경찰서, 화양면사무소, 여수지역사회연구소를 방문하였다. 또한 박창래의 자(子)인 신청인 박도순, 해당지역사회 연구소의 연구원, 향토사학자들과의 면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외 화양면민 박사훈(89세), 김종림(70세), 조순환(85세)과 김형주(81세)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본 실지조사는 박창래의 행적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참고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박창래의 행적을 탐문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기간에 진행된 신청인, 전문가, 참고인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박창래가 항일단체인 독서회에서 활동했다.

둘째, 박창래가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화양면 인민위원장에 선출되었지만, 선출된 후 그의 구체적인 역할과 행적은 뚜렷하지 않다.

셋째, 전문가들과 유족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박창래가 여순사건 진압 후 지리산으로 도주하지 않고, ‘만성리 형제묘’ 사건에서 진압군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추정하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

마. 신청인과 사건 관련자 면담 조사결과

1) 박도순(신청인)

박창래의 아들인 신청인 박도순과의 면담은 총 2회 실시 하였다. 면담에서는 여순사건 이후 박창래의 행적 파악 및 사망 경위와 시기에 대한 증언을 통해, 신청인의 진술과 제출한

16) 현장조사 및 참고인 면담 여수 출장 1차 보고서.



첨부자료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박도순이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부친 박창래와 관련하여 그가 옥고를 자주 치루었다는 사실과, 신청인의 조모(박창래의 모친)가 ‘아들이 만세운동을 하는 바람에 집안이 망했다’고 언급했던 것은 기억했으나, 여순사건발생 시기에 신청인의 나이가 어려(1937년 生) 부친의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창래가 여수수산학교를 제대로 졸업 하지 못한 사실도 2005년 여수대학교에서 박창래에게 수여한 명예졸업장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도순은 박창래가 여순사건 후 만성리 굴 뒤에서 총살당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박창래와 친분관계가 있었던 이상배와 서이선(前경찰, 당시 화양지서 근무)이 박창래의 처(박도순의 모친)에게 남편이 처형당할 사실을 알렸으며, 이에 그의 처는 남편을 위해 명주저고리와 바지를 준비하여 경찰을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 또한 박도순은 모친과 함께 경찰서 앞에서 부친이 타고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트럭을 먼발치에서 지켜본 기억도 있다고 진술했다. 트럭의 가장자리에는 군인들이 타고 있었고, 그 안쪽에 민간인 복장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으므로 트럭 안에 부친이 타고 있는지는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후에 화양지서 경찰들이 그 트럭에 부친이 타고 있었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기억하며, 그 뒤 트럭이 만성리 굴 뒤로 이동했다는 사람들의 말도 들었다 한다. 따라서 박도순은 부친이 만성리 굴 뒤에서 좌익 가담자로 색출된 다른 125명¹⁷⁾과 함께 즉결 처형되었다고 주장했다.

박도순은 부친이 실려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트럭을 목격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용주리 산 위에서 자신의 집이 불타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그 후 부친의 시신을 수습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후 박도순과 그의 가족은 화양면 내의 다른 친척집으로 피신을 다녔다고 한다.

박도순이 진술하는 박창래의 기일은 음력 12월 17일로(양력 상 날짜는 1949년 1월 15일) 이날이 경찰서에서 박창래가 트럭으로 실려 만성리 굴 뒤로 이동한 날이라고 한다.

위의 사실을 근거로 유족들은 박창래가 여순사건 직후 만성리 굴에서 토벌대에게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적등본 상 표기된 박창래의 사망 시기(1952년)에 대하여 신청인은 그 연유를 알지 못했으며, 당시 면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촌형에 의해 여순사건이 종결된 한참 후에 사망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17) 125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후에 집계된 만성리 사건의 피해자 전체 숫자를 이야기한 듯하다.

박창래의 사망 후 신청인의 형 박해순(박창래의 장남, 당시 중학교 1학년)도 연행되어 화양지서와 여수 경찰서, 대전 형무소 및 김천소년원에서 옥고를 치루었고 형무소에서 사망했다고 증언하였다.

2) 참고인 면담조사¹⁸⁾

본 면담은 당시 사건을 간접적으로 겪었던 참고인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하며, 특히 해방 후 박창래가 여순사건과 관련된 점을 고려하여 당시 목격자 및 일반주민 중 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박창래의 행적을 탐문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의 방식은 참고인들이 고령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질의응답이 아닌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면담의 대상은 사건당시의 지역민 생존자를 위주로 선정했으며, 비교적 근거리에서 목격한 인물들을 선별하였다.

참고인들의 이력은 <표 2>와 같다.

〈표 2〉 참고인들의 이력

성명	연령	거주지	당시 경력	비고
곽사훈	89세(남)	여수시내	여수 우체국 화양면 사무소 직원	지역 원로
김종림	70세(남)	화양면, 나진리	농민	지역거주민
조순환	85세(남)	화양면, 나진리	농민	지역거주민
김형주	81세(남)	화양면, 나진리	농민	지역거주민
문선동	76세(남)	화양면, 나진리	농민	지역거주민
문장옥	85세(남)	화양면, 나진리	농민	지역거주민
고연임	82세(여)	화양면, 나진리	주부	지역거주민
신영길	78세(남)	여수시내	철도국 직원	당시 우익인사

다음은 참고인들이 진술한 주요 내용이다.

참고인들 대부분은 박창래를 기억했으나 박창래의 독서회 사건과 관련한 항일행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으며, ‘학생운동을 하다가 일본순사에게 잡혀갔다는 소문을 듣는

18) 1차 실지 조사 결과 보고서 및 신청인·참고인 진술조서; 신영길 면담 보고서.



적이 있다’는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다. 일반주민의 경우 박창래의 해방 후 행적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으며, 단지 ‘화양면 면장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참고인들 대부분은 박창래가 인민위원장직에 선출된 경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박창래가 ‘면장’을 역임했던 기간이 일주일 정도에 불과하며 인민위원장으로서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¹⁹⁾

일반주민들은 대체로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관심보다는 생활고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더 많았다고 하며, 여순사건 후 박창래의 처형사실 등은 마을에 떠돌던 소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정치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참고인들(곽○○과 신○○)의 경우에는 박창래에 대해 여수지역에서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해방 후 여순사건 당시 박창래가 인민위원장을 수일간 역임했고, 그 경위나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화양면에는 지식인이 거의 없었으므로 여수수산학교를 다닌 박창래는 지식인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그가 화양면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박창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는 참고인은 없었으며, 여순사건 이후 마을에서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한국전쟁 중 인민군 점령 하에 다시 마을에 나타났던 다른 좌익인사들의 경우와는 구분된다고 첨언하였다.

일반주민 중 당시 박창래의 옆집에 거주했던 참고인 조순환과 고연임은 박창래가 체포된 직후 당시 진압군 제5연대장이었던 ‘김종원의 운동장 집회²⁰⁾가 열린 날 아침’ 박창래의 집이 불태워졌다고 진술했다. 고연임(조순환의 처)은 박창래가 여순사건 발생 후 체포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나진리 거주 참고인들은 박창래가 검거된 후 만성리 굴에서 처형당했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 했으며, 그 후 가족들이 그의 시신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결국은 찾지 못했다는 말 역시 소문으로 들었다고 했다. 또한 만성리 학살 사건 후 박창래의 부인이 남편의 사체를 찾지 못해 울면서 길을 다녔던 모습도 기억하고 있었다.

바. 소결

여수수산학교의 독서회 조직은 1930년 3월 여수 종고산 정상에서 열린 모임에서 발족했으며, 여수지역의 청년단체 중 항일성격을 가진 주요한 단체였다. 박창래는 백인렬의 권유를

19) 참고인(일반 지역거주민)들의 경우 인민위원장과 면장이라는 직책을 구분하지 않았다.

20) 참고인이 언급하고 있는 ‘김종원의 운동장 집회’는 진압군에 의한 종산초등학교 교정에서의 즉결참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인들은 사건 발생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했지만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다고 판단된다.

반아 동(同)회에 가입했고, 초기에는 백인렬 조에 소속되어 활동했으며 ‘독서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자 5개조 중에 정학조가 대표로 선임되었던 2조에서 활동했다. 그는 김재곤 등과 같은 조에서 활동하면서 일제의 한반도 차별정책과 식민지 교육에 불만을 품고 조국의 독립운동에 나설 것을 결심했으며, 동료 학생들과 회합을 갖고 항일의식을 고취하며 항일투쟁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1930년 9월 독서회 회원들의 활동이 일제에게 발각되어 박창래도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구속 수감되었으며, 1931년 9월 4일 동료 13명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치안유지법 위반(제1조제2항)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같이 박창래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독서회’ 조직을 통해 반일적 사상을 가지고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로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은 예비조사에서 행했던 문헌조사, 전문가 면담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에서도 확인되었다.

2. 해방 후 박창래의 사회주의 경력

가. 예비조사 결과에 나타난 주요 사회주의 경력

신청인 박도순은 부친 박창래의 좌익과 관련된 행적 때문에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부친이 제적등본 상 사망연도가 1952년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보다 3년 앞선 여순사건 진압 중에 사망하였다고 믿고 있었는데, 여수지역의 향토사학자의 진술과 문헌자료를 통하여 박창래가 여순사건 당시 화양면 인민위원장직에 선출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²¹⁾ 사망 연도에 대해서는 지리산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했다는 증언도 있었기 때문에²²⁾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연구문헌을 통해 확인된 사실

박창래의 해방 후 행적은 황남준의 연구 결과물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박창래가 여수지역 좌익계 독립 운동가였으며, 식민지 시대 여수지역의 민족해방 운동의 지도자들이었던 이용기, 이창수, 주원석, 유목운, 박채영 등과 함께 여수지역에서 활동했다고 언급되어 있다.²³⁾

여순사건의 참여계층에 대한 연구 논문에는 여순사건의 참가계층을 주도계층, 민간인과

21) 위의 진술은 1998년 여수지역 사회 연구소에서 발행한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1집』에서 언급한 조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0쪽과 61쪽)

22) 2006년 6월 5일 전화면담에서 한 향토사학자 여순사건 발생 후 박창래의 행적과 관련된 소문에 대해서 언급했다.

23) 황남준, 1987, 「전남지방정치와 여순항쟁」,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434~436쪽. 김계유, 「1948년 여수봉기」, 『역사비평』 1991년 겨울호.



학생으로 구성된 적극가담계층 및 단순가담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적극가담 계층의 경우 14연대내 하사관그룹과 밀접한 연계를 가진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박창래가 속한 민간인 적극가담 계층에는 좌익계 단체나 소속의 민간인과 학생들이 포함되며, 특히 민간인 가운데 여순사건의 적극가담세력은 일제시대 때부터 좌익 활동을 해왔던 남로당원과 좌익단체의 대표, 좌익계 청년단체와 학생조직, 여성조직, 노조원, 석방죄수, 행상인 등으로 수산학교 좌익 계학생들의 경우 14연대 장교들과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²⁴⁾

다. 공문 발송을 통해 확인한 사실

서울경찰청('06.6.22.공문 발송, 7.5.회신), 국가정보원('06.7.12.공문 발송, 7.26.회신), 여수 경찰서 보안과('06.9.4.공문 발송 및 회신), 여수 경찰서 정보과('06.7.21. 공문 발송, 7.31. 회신)와 법무부('06.9.14.공문 발송, 9.15. 회신)에 공문을 발송하여 박창래의 공안자료를 요청했으나 관련 자료가 존안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가기록원에도 공문발송을 통해 박창래의 수형기록사본을 요청하였고('06.7.21.), 3 건의 박창래 판결문을 입수하였는데, 그 중 1건이 독서회사건과 관련되어 있었고 나머지 2건은 해방 후 그의 행적과 관련된 것이었다.²⁵⁾

그 3건에 대한 판결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독서회 사건과 관련한 1931년 9월 4일자 판결문에는, 박창래가 전남 여수에서 독서회를 조직하여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했으며, 이와 관련 소화 6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고 언급되어 있다.

둘째, 해방 후 행적과 관련된 판결문들에는 건국준비위원회 주최로 소작료비율 배분 등 농민개혁 운동에 참여했다가 미군정청 포고령 위반으로 1947년 1월 22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내용. 셋째, 1948년 5월 3일과 7일 양일간 5·10 제헌선거 방해 및 불온 삐라를 작성하고 배포할 것을 토의한 혐의로 1948년 8월 31일 벌금 3000원 혹 노역장 유치시 30일 형을 선고 받은 일이었다.

그 외에 2006년 9월 6일 화양면 면사무소로부터 수령한 수형자 색인부에는 박창래의 수형횟수가 두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입수(2006.7.21.)한 3건의 판결문 중 해방 후 것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나 숫자 이외에 기재된 사건 내용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24) 손태희, 2003.2., 「여순사건 참가계층의 재유형」,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홍영기, 1996, 23~33쪽 ; 홍영기, 「여순사건에 관한 자료의 성격과 연구현황」, 순천대학교 논문.

25) 독서회 관련(1931. 9. 4)외 나머지 두건(1947. 1. 22.과 1948. 8.31.)은 첨부된 판결문.

라. 전문가 자문 결과

여순사건 및 좌익 활동과 관련한 박창래의 행적과 활동사항에 대해 해당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했다.

- 1) 국사편찬위원회의 연구원과의 면담은 2006년 7월 21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진행되었으며,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창래의 해방 후 사회주의 행적과 관련하여 그의 여순사건 관련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즉 박창래가 인민위원장으로 선출된 경위, 기간, 활동 내용, 사망경위를 조사하여 당시 인민위원장직의 수행 경력이 사회주의 활동 정도의 정확한 척도로 이해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 2) 2006년 8월 21일 민족독립조사국에서 실시된 지역 향토사학자와의 주요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순사건 당시 박창래가 화양면 인민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민위원장의 선출 경위와 그 구체적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다만, 14연대가 여수를 장악했던 기간이 약 열흘 정도에 불과했음을 감안한다면²⁶⁾ 박창래가 인민위원장으로서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해당기간 동안의 그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들 어본 일이 없다.

둘째, 여순사건 진압 후 도주했던 화양면 부위원장 김○○은 한국전쟁 중 인민군 치하에서 위원장이 되어 화양면으로 돌아왔으나 박창래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없는 점으로 보아, 그가 도주했던 지리산에서 폭격 등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참고로 1998년에 여수지역 사회연구소²⁷⁾에서 발행한 '여순사건 실지조사보고서'에는 박창래가 화양면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여순사건 직후 특경대에 체포되어 처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⁸⁾

셋째, 독서회 사건 관련자 중 가장 먼저 서훈을 추서 받은 오늘날의 경우 해방 전에 사망했으며, 독서회 활동에서 주동자 역할을 했던 윤경현은 해방 후 좌익 활동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5년 8월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 받은 자들 역시 여순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박창래의 여순사건 관련성이 그의 독립운동 인정에 주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26) 잘못된 기억으로 보인다. 실재는 일주일 정도였다.

27)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996년 출범한 지역단체로 여순사건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하는 등의 여순사건 관련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28) 여수지역사회 연구소, 1998,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1집』, 30쪽, 61쪽.



3) 2006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 면담에서 해당지역사회 연구소의 전문가와 향토 사학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독서회’는 대체로 좌익계열 학생들이 주도했던 조직이었다.

둘째, 박창래는 지역의 좌익세력으로 여수지역에서 중심적인 남로당원으로 활동했던 김수평²⁹⁾과 친분이 두터웠다 하며 여순사건의 발발과 함께 10월 21일 면 소재지인 나진리에서 개최된 인민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이후 진압군에 의해 체포되어 만성리 형제묘에서 처형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현재까지 ‘만성리 형제묘’ 사건³⁰⁾은 1949년 1월 13일 경에 발생했다고 학계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박도순이 주장하는 박창래의 체포·압송일인 음력 12월 17일(양력 상으로는 1949.1.15.)과 이틀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연구소의 연구원은 ‘만성리 형제묘’ 집단학살 사건 이외에도 1949년 1월 13일 전후로 적은 규모의 학살이 연이어 발생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셋째, 제적등본 상에 기재되어 있는 박창래의 사망 연도(1952년)에 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현재 여순사건에서 희생된 다수 사람들의 사망 연도도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제적등본 상으로는 심지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마. 현지조사 결과³¹⁾

2차 여수 실지조사는 2006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었는데, 박창래의 좌익활동 경력과 관련하여 객관적 자료와 기록의 존안여부 확인을 위해 여수경찰서 및 화양면사무소의 관련 기록물을 검토하였고, 신청인 박도순, 해당지역 사회연구소의 전문가, 향토사학자, 지역민 문장옥(85세), 고연임(82세), 신영길(78세)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수경찰서의 정보과를 방문하여 정보계통과 관련된 신원조사서 및 비밀관리기록대를 열람하였으나 관련 기록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둘째, 여수경찰서의 보안과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서가 1963년에 생산된 문서이므로 박창래와 관련한 기록은 이미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셋째, 신청인 박도순 및 가족에 대한 신원조사 조회기록 등 관련 기(既)자료를 요청하였

29) 김수평은 일본 명치대를 졸업한 당시 여수지역의 좌익계 지식인으로서 유명하다.

30) 현재까지 ‘만성리 형제묘’ 지역은 20~30세의 청장년 125명이 희생되었다고 알려지는 곳으로 집단학살 장소 가운데 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31) 1차 실지 조사 결과 보고서 및 신청인·참고인 진술조서; 신영길 면담 보고서.

으나 이에 관한 자료도 부재함을 통고 받았다. 이와 같이 박도순 자신과 그의 가족에 대한 특이사항 조희를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따라서 신청인이 부친과 관련하여 연좌제로 최근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³²⁾

넷째, 여순사건 발생 후 박창래가 군경에 의해 체포된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한 고연임³³⁾과의 면담을 통해 박창래의 검거 정황을 추정할 수 있었다. 비록 참고인 고연임이 사건을 목격한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박창래의 연행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마지막으로 자료수집의 경우, 화양면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었던 박창래의 수형자 색인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었다.³⁴⁾

바. 소결

사회주의계열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독서회’의 성격을 고려해 본다면 해방 전 박창래가 독서회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그가 사회주의 사상과 연계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여순사건 당시 그가 화양면 인민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문헌자료와 증언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며, 전문가들의 견해 및 참고인들과 신청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박창래는 여순사건 발생 후 진압군에게 체포되어 ‘만성리 형제묘’에서 군경에게 희생당했다는 전문가의 견해 및 증언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VI. 결론

1. 여수수산학교의 독서회 조직은 1930년 3월 여수 종고산 정상에서 열린 모임에서 발족했으며, 여수지역의 청년 단체 중 항일성격을 가진 주요한 단체였다. 박창래는 백인렬의 권유를 받아 동(同)회에 가입했고, 초기에는 백인렬 조에 소속되어 활동했으나, ‘독서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자 5개조 중에 정학조가 대표로 선임되었던 2조에서 활동했다. 그는 김재곤 등과 같은 조에서 활동하면서 일제의 한반도 차별정책과 식민지 교육에 불만을 품고 조국의 독립운동에 나설 것을 결심했으며, 동료 학생들과 회합을 갖고 항일의식을 고취하며 항일투쟁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1930년 9월 독서회 회원들의 활동이 일제에게 발각되어 박창래도 다른 관련자

32) 박도순 자신은 박창래의 좌익경력으로 자신은 직접적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그의 아들들이 사관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고 하며 신학대학교에 진학하여 현재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33) 사건 발생 당시 참고인 고연임(82세)은 박창래의 옆집에 거주했음.

34) 수형자 색인부에는 박창래의 수형 횟수가 2회로 명시되어 있어 국가기록원의 3건의 판결문 중 해방 후 것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나 수형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었다.



들과 함께 구속 수감되었으며, 1931년 9월 4일 동료 13명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치안유지법 위반(제1조제2항)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같이 박창래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독서회' 조직을 통해 반일적 사상을 가지고 항일 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로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은 예비조사에서 행했던 문헌조사, 전문가 면담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2. 사회주의계열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독서회'의 성격을 고려해 본다면 해방 전 박창래가 독서회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그가 사회주의 사상과 연계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여순사건 당시 그가 화양면 인민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문헌자료와 증언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며, 전문가들의 견해 및 참고인들과 신청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박창래는 여순사건 발생 후 진압군에게 체포되어 '만성리 형제묘'에서 군경에게 희생당했다는 전문가의 견해 및 증언이 설득력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적으로 1930년대 독서회 활동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은 박창래의 항일 행적은 1931년 9월 4일자 여수수산학교 독서회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바, 본 사건은 기본법 제2조1항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실규명으로 판단된다.